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계시와 성경, 6차시, 계시의 의미와 우리의 필요성, 외부 일반 계시, 시편 19:1-6과 로마서 1:18- 25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성경의 계시에 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6, 계시의 의미와 우리의 필요성입니다. 외부 일반 계시, 시편 19:1-6과 로마서 1:18-25.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께서 일반 계시로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특별 계시로 당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선택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당신 아들의 성육신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설교에서, 그리고 가장 특별히 당신의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간구합니다. 아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계시의 의미와 계시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표준 사전은 계시를 "신성하거나 초자연적인 수단을 통한 지식, 지시 등의 공개 또는 전달"로 정의합니다. Oxford English Dictionary.

영어 단어 revelation은 라틴어 revelation에서 유래한 것으로, 베일을 벗기다, 드러내다, 드러내어 놓다를 의미합니다. 불가타는 이 라틴어 단어를 사용하여 계시 공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apocalypsis를 번역했습니다. 신약성서는 일반적으로 apocalypsis를 사용하여 이전에 감춰진 진실, 특히 신과 그의 계획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셨다는 널리 퍼진 구약성경의 견해가 이 용법의 배후에 있습니다. 계시에 대한 이 개념은 구약과 신약성경에 매우 꾸준히 나타나서 우리는 계시에 대한 성경적 개념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전달하시며, 종종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분류됩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신이 자신을 드러내어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모든 사람을 책임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신이 자신을 드러내어 자신이 부분적으로 누구인지 보여주고 모든 사람을 신으로서 그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계시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사람에게 신이 자신을 드러내어 그들이 그와 구속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 번,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 대조적으로, 일반 계시와 구별되는 것으로,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그들이 하나님과 구속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 계시는 구속적이지만 일반 계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밀라드 에릭슨의 기독교 신학, 177~245페이지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밀라드 에릭슨의 기독교 신학, 177~245. 계시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스럽습니다. 계시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신은 무한한 창조자이고, 우리는 그의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무한하다는 말은 신이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마치 제한되어 있고, 자신의 속성으로 더 잘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불경스럽거나 무지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벽합니다. 그는 그의 모든 완벽함에 있어서 무한합니다. 이는 그것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그의 능력과 이해력을 언급합니다. 시편 147:5, 인용문,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방대합니다. 그의 이해력은 무한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권능이 광대합니다. 그의 이해는 무한합니다. 시편 147:5.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지요, 온 땅의 창조주이시다.

그는 결코 기절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그의 이해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사야 40:28. 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그분만이 인용문이며, 높고 고귀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57:15. 그리고 그분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위대한 무한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신에 대한 지식을 배우거나 신이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전달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는 것 외에는 신을 알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무한하신 신은 관대하게 자신을 우리, 그의 약하고 유한한 피조물에게 계시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편 139편은 우리가 놀랍게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요점은 우리가 놀랍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새 땅에서 부활한 전체적 존재로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의 부활한 몸과 인격을 부패하지 않고, 불멸하고, 강력하고, 영광스럽고, 영적이라고 묘사합니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령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삶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필멸의 몸으로 영원한 삶을 가진 그의 구속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 다음 부활에서 우리는 불멸의 몸으로 영원한 삶을 가진 구속받은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지위는 영구적입니다.

오, 그것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지만 끝은 없습니다. 물론 대조적으로, 시편 90편,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끝도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유한성이 첫 번째입니다. 모든 완벽함에 있어서 무한하신 무한하신 신에 반해 우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한성에 의해 제한되는 것 외에도 우리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인용합니다.

그의 영광이 땅을 가득 채웁니다, 이사야 6:3. 이에 이사야는 외칩니다, 나에게 화가 있다,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만군의 주이신 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인용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1:18. 실제로 타락한 인간들은 인용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무가치하게 되었고, 그들의 무분별한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어리석어졌습니다, 로마서 1:21, 22.

우리의 유한성에 의해 제한되고 우리의 죄에 의해 눈이 멀어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나 그에 대한 진실을 아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그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는 은혜롭게 아담과 이브에게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그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은혜롭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평 중 일부에 대해 오랜 친구인 데이비드 G 던바의 도움을 받고,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제목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후자에서 그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전자의 일반 계시에서 그는 모든 시대와 장소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알립니다. 일반 계시에는 세 가지 주요 형태가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인간, 그리고 섭리. 하나님은 그가 만든 세상에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창조로부터 인간의 마음에 그의 법을 기록함으로써 인간 속에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섭리나 역사 속에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일반 계시라는 제목 아래, 우리는 창조, 인간, 섭리 속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시편 19편, 로마서 1장,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시편 19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9편은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세상에서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말하고, 7절 이하에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9:7에서 11, 12에서 14절은 기도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위의 창공이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선포합니다. 낮에서 낮으로 말을 쏟아내고, 밤에서 밤으로 지식을 드러냅니다. 음성이 없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도 없습니다.

그들의 음성은 땅을 통해 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 끝까지 간다. 그들 가운데서 그는 해를 위해 천막을 세웠는데, 그것은 신랑이 그의 방에서 나오는 것 같고, 강한 사람이 기쁨으로 그 길을 달리는 것 같다. 그의 솟아오름은 하늘의 한 끝에서 시작하여 그 끝까지 이르며, 그 열기에서 숨은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창조의 일반 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 계시로 옮겨갑니다. 주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옳고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깨끗하고 영원합니다.

보다 , 심지어 많은 순금 보다 더 바람직합니다 . 꿀과 벌집의 물방울보다 더 달콤합니다.

더욱이 당신의 종은 그들에게 경고를 받습니다. 그것들을 지키는 데에는 큰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특히 처음 여섯 구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실제로 구약성서의 고전적 텍스트, 즉 그의 세계와 그의 창조물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교리를 위한 *Textus classicus*로 묘사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위의 하늘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동의어적 평행법이며, 은유를 사용하여 하늘이 실제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 하지만 그들은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신의 영광, 그의 아름다움, 그의 웅장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늘 위의 하늘은 하늘과 평행하여 그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선포합니다.

신이 그의 세상을 창조한 것은 그의 위대함, 그의 영광을 어느 정도 보여주며, 그가 그 세상을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모든 아담은 마치 신이 나를 만들었다고, 신이 나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전에 기독교 변증가가 되어 신학교에서 가르친 동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너무 우울해서 자살을 하려고 언덕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태양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눈을 내리고 나무와 풀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의 질서를 바라보며,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섬기고, 그의 생애 동안 많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위의 하늘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는 하늘 아래 모든 곳, 즉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보편적이어서 일반 계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하늘과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거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매일 매일이 말을 쏟아내고, 은유가 확장되고, 밤에서 밤으로 지식이 드러납니다. 매일, 매일 밤, 모든 인간, 죄인과 성인은 모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하나님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폭격을 당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글과 문자 언어에 접근할 수 없는 원시인들은 신이나 신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죄 때문에, 아담의 죄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결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무신론적인 원시인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숭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상하게도 그 위대함을 증명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개종의 결과 중 하나를

유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더 이상 모든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그가 범신론자였을 때,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고 경탄했습니다. 그는 경탄했습니다. 그는 특히 수영하는 시간을 즐겼고, 아침에 경건한 시간을 보내고 수영을 하러 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물과 주변의 광경과 소리와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신의 좋은 세상을 기뻐했습니다. 3절은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연설도 없고 그들의 말도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은유라고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이지만, 시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ESV가 하는 그 번역은 제가 여기서 시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저는 단지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고, 문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또는 연설도 없고 그들의 말이 없는 곳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즉, 창조물 속의 하나님의 계시는 매일 밤낮으로 계속될 뿐만 아니라 보편적입니다. 사실, 3절을 어떻게 번역하든 4절에서 6절은 바로 그 진리, 즉 일반 계시의 보편성을 증거합니다. 2절은 그 불변성, 즉 항상 밤낮으로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4~6절에서 태양을 하늘의 주요한 궤도, 인간의 주요 관찰 대상으로 말하면서, 순환을 이루며, 이로써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물에서의 그의 계시. 그들의 목소리는 온 지구에 퍼져 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그것은 보편성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 안에서 그는 태양을 위한 천막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의인화가 있습니다. 태양은 주자 또는 신랑으로 묘사됩니다.

그 가운데 그는 해를 위해 천막을 세웠는데, 해는 신랑이 자기 방에서 나와 아내를 데려가려고 가는 것 같고, 강한 사람이 기쁨으로 그 길을 달리는 것 같다. 그래서 해는 자기 천막에서 나와 하늘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한다. 해는 떠오르고 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은 하늘의 한 끝에서 시작하여 그 끝까지 순환한다.

그리고 그 열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코를 세거나 구절의 수를 세는 측면에서 가장 큰 초점은 그의 창조물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현실과 그 불변성뿐만 아니라 그 보편성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물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노출됩니다.

그것은 생생한 해석입니다. 여기에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몇 가지 메모가 있습니다. 저는 강조와 완전성을 위해 메모를 합니다.

시편 19편 1~6절에서, 시편 19편이 선포하듯이, 하나님은 창조물 안에서 우리 밖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율법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는 우리 밖에서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포함합니다.

우리 외부, 우리를 포함하되, 우리의 내부는 아닌 것이 여기서 초점입니다. 그의 외부 일반 계시에서,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느님은 마음에 기록된 그의 법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신의 형상의 한 측면은 내적인 일반 계시입니다. 지금까지 하늘과 태양 등에 대해 이야기해 온 것은 그의 외적인 일반 계시, 즉 우리 밖에 있는 그의 계시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등을 포함합니다. 시편 19편에서 선포하듯이, 신은 창조물 안에서 우리 밖에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그의 손으로 한 일을 선포합니다. Christian Standard Bible. 조금 다른 번역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외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의 양식은 하나님의 창조이며,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일부 계시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모든 지식을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금 시작했고, 그것이 그의 영광과 그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창조물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수작업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가 경외롭고, 이 창조물을 만들 만큼 강력하고, 지적이고, 훌륭하고, 이 매우 질서 있는 창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우주를 연구하든 미시적으로 세포를 연구하든, 그 질서는 놀랍습니다. 그것은 질서자 , 창조자, 창조주를 가리킵니다. 이 창조의 타이밍은 연속적입니다.

날마다 그들은 말을 쏟아내고, 밤마다 그들은 지식을 전한다. 2절, 이 계시의 범위는 보편적이다. 그들의 메시지는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은 세상 끝까지 퍼졌다.

4절에서 이 계시의 보편성은 태양에 의해 요약되는데, 태양은 하늘의 한 쪽 끝에서 떠올라 다른 쪽 끝까지 원을 그리며 돈다. 인용문 달기, 6절, Christian Standard Bible. 따라서 외부 일반 계시는 모든 곳에서, 항상 일어나며,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 그리고 그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것은 인간이 이 계시를 차용한 것과는 상관없이 전달되며, 시편 19편은 인간이 이 계시를 차용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로마서 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은 신약성서 주석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시편 19편과 시편에서 인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절들, 예를 들어 이사야와 욥기에 대해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로마서 1:18-25, 다시 한번, 로마서 1장의 맥락에서 신학과 가르침을 끌어내기 전에 본문을 다루고 싶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주제를 발표하자마자, 로마서의 주제적 진술이 로마서 1:16과 17에 있다는 데에 대한 보편적인 동의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자 사도라고 소개하는 서론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말하고, 로마서 16장과 17장 1장에서 로마에 와서 그들에게 사역하고자 하는 바울의 소망에 대해 말한 후, 그는 로마서의 주제를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그러하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문학적 인물인 라에 티티우스가 말했듯이, 부정적인 것을 부정함으로써 강한 긍정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발언입니다.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련의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심지어 그의 능력과 동일시됩니다. 글쎄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는 그 메시지에 자신의 능력을 더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등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합니다. 그는 서신의 시작부터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데, 그의 목적 진술에서 이미 여러 번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10장이 그가 가장 잘 하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서 4장에서 칭의의 필요성과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그것을 받는 방법, 즉 믿음으로 받는 방법을 보여주는 책의 첫 부분에서 그렇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의 복음서의 첫 페이지부터 이미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소 불화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14장에서 증거하고 15장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을 치유하고자 했고, 그래서 그는 책 전체에 걸쳐 복음 메시지를 전개하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같은 표현이 두 번 쓰였고, 고린도후서의 같은 맥락에서 두 번 더 쓰였습니다. 사실 한 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입성 장입니다. 아마도 3장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바울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향기라고 말한 장입니다. 의미는 복음이고, 그림은 황제에게 트로피로 바치고 괴롭히기 위해 살려둔 포로들을 끌고 가는 승자들의 귀환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들을 죽이고 그 불쌍한 포로들에게 향이 퍼레이드로 내려오는 냄새를 맡고 악취가 납니다. 그것은 슈퍼볼 축하 행사나 월드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와 같습니다. 한 팀이 너무 높아서 다른 팀은 배를 기어서 기어갑니다.

그들은 매우 낙담해 있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것은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는 향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즉, 그것은 바로 죽음의 향기입니다.

그것은 승자에게는 참으로 죽음의 향기입니다. 아, 그것은 너무나 달콤한 냄새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향기, 생명 그 자체의 향기, 참으로 생명의 향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참으로 믿음에 관하여,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대로, 그는 하박국을 인용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므로 로마서의 주제는 좋은 소식, 복음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저주하는 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바울이 주제로 돌아가는 것은 321절이 되어서입니다.

1:18에서 3:20까지 그는 깊은 구덩이를 파고, 온 세상이 도랑에 빠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321에서만 나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사람들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극심한 곤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음, 1:16과 17, 3:21의 주제적 진술에서 소개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별도로,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더 많이 다루려는 모든 개혁 신학자의 유혹인 유혹을 물리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로마서를 완전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로마서 1:18 이하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로움이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드러납니다(로마서 1장 18절). 불의함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진리입니까? 그들은 그것을 억누릅니다. 즉, 이 진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르는 것을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오, 그는 설명합니다. 하느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머, 바울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하느님이 그들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언가, 아마도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분노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식, 이 계시, 이 정보를 억압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의 설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어로 설명적인 gar인데, 그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이 분명히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폴, 우선,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메시지와 동일시하는데, 그것은 생생한 그림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의 속성일 뿐입니다. 오, 하지만 그는 이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그의 능력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 중 하나는 아니지만, 그것이 실제로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글썬요, 그는 자신이 만든 것들을 통해 그것들을 보이게 만듭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는 그것이 여기 있는 것, 즉 그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 19편, 그의 영광과 그가 생산된 수공예품을 만들었다는 사실, 그것이 그의 창조주성, 말하자면 그의 창조주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즉 그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이 분명히 인식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시편 19편의 계시가 창조물, 만들어진 것들에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오, 와우.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권능과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의 신성한 본성, 그리고 그의 신성 그 자체가 인류에게 보여졌습니다.

시편 19편에서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계시되었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인간이 이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의 진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속성 중 일부를 분명히 하셨고, 여기서 그는 창조 이래로 만든 것들에 대한 자신의 권능과 신성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시편 19편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결론은 그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드러났습니다. 인간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떤 문맥이나 어떤 문학에서든 어떤 단어든 정의해야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주이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문맥에서 말했듯이, 그가 만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신성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를 하나님으로 공경하거나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무하게 되었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시편 19편에 나오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18절에서 억압에서 소개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 전체를 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죄인들에게 전달되지만,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곡하고 억압하고 비틀고, 그 지식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칼빈이 말했듯이 감각이 있습니다. *divinitatis* , 신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 그들은 신을 숭배할지 몰라도, 참되고 살아 계신 신은 숭배하지 않습니다. 계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의 라디오 방송국인 GOD은

그의 복음을, 그의 복음이 아니라, 신의 계시를 끊임없이,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내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수신기가 막혔고, 라디오가 영망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과 관련이 있지만, 그의 은혜, 죄의 용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혜롭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은 어리석어졌고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필멸의 인간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비슷한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창조는 인간에게 전달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행위에서처럼, 우리는 그것을 종교적 죄, 우상 숭배, 그리고 다른 그런 것들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다른 그런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마법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에서 우상 숭배라는 종교적 죄는 성적 죄와 합쳐져 있습니다.

육신의 행위, 이제 육신의 행위는 분명합니다. 성적 부도덕, 더러움, 관능, 성적 죄, 우상 숭배, 마법, 종교적 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목록은 대인 관계의 죄를 다루는데, 이는 갈라디아인들에게 우세했던 것과 정확히 같으며, 그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성령의 열매가 필요했지만, 저는 그것을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목적은 위해서만 거기에 갔습니다. 로마서 1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바울이 종교적 죄와 성적 죄를 합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서는 성적 죄, 주로 이성애적 성적 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염두에 둔 것은 동성애적 성적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그들을 내어주어 더러움에 빠지게 하셨고, 그들끼리 몸을 더럽히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환이 두 번째로 언급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악합니다.

23절, 하나님의 영광, 곧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25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창조주는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은 성적 죄, 특히 동성애적 죄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도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1장은 왜 종교적 죄를 합친 것일까요? 성적 죄와 함께하는 모순이 얼마나 큰지요. 왜냐하면 두 영역, 두 종류의 죄 모두 우리를 정의하는 인간 삶의 측면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여자아이, 남자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그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들도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와의 관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별이 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종교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오, 우리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잘못된 것을 예배할 수도 있고, 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강의에서 저는 같은 패턴을 따르고, 노트로 돌아가서 방금 본문에서 살펴본 몇 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명확히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성경의 계시에 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 이것은 세션 6, 계시의 의미와 우리의 필요성입니다. 외부 일반 계시, 시편 19:1-6과 로마서 1:18-25.